

월요논단



정 구 철
제주국제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적으로 No Japan 운동이 일고 있다. 스포츠계에서도 Nolympic 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고 있다. 일본 도쿄는 1964년 제18회 올림픽에 이어 2020년에 제32회 하계 올림픽 개최국이다. 그러나 세계의 환경 단체들과 유럽 등지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사고로 인해 여전히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하며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개최지 변경을 요구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Nolympic 운동이 그것인데 그 시작은 올림픽 경기로 인한 환경 훼손을 반대하는 운동이다. 환경보존을 위해 올림픽 경기 개최지를 포기한 것은

No Japan 그리고 Nolympic 운동을 주시하며

1974년 미국의 콜로라도 덴버시가 최초였다. Nolympic이란 용어는 1994년 제17회 릴레함메르 동계 올림픽 반대 운동부터 시작됐다. 거침없이 발전하던 올림픽에 제동이 걸렸던 시발점이다.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시민들은 동계올림픽 시설을 위해 거대한 산을 깎고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을 베는 것에 분노했고, 강력한 개최 저지 운동을 통하여 결국 IOC와 정부 그리고 반대 단체들과의 합의를 거쳐 대규모로 계획을 변경하여 거의 모든 시설물들을 가설 경기장으로 대체하며 대회 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개최됐는데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친환경적인 대회가 될 수 있었다. 이후 큰 자극을 받은 IOC는 개최지 선정 시 친환경적 개념을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올림픽 선정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가치에 순화하면서 발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방사능 문제가 대두되어 IOC입장을 난처

하게 하고 있다. IOC 규정에는 '개최 도시와 국가는 올림픽 참가자들이 건강 환경에서 경기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개최권을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의 방사능 수치는 허용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대기 방사능 수치와 토양 방사능 수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능 수치의 3000배 이상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각종 올림픽 위원회들은 선수들 건강을 위해서는 방사능 문제를 간과하지 말 것을 IOC와 일본 개최측에 요구하고 있다. 그린피스와 환경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여전히 방사능 노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후쿠시마 농수산물과 대기에서의 방사능 허용 기준치 초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피폭 위험이 크다는 반대 입장이다. 사실 일본은 1964년 동계 올림픽 개최를 통하여 패전국 이미지를 걷어내

고 선진국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반제국을 지나고 개최하는 2020 도쿄 올림픽 경기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의미가 크다. 우선 올림픽 경기 개최를 계기로 경제회생의 전기로 삼고 자국민들에게 일등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심어주고 전 세계에 강력한 국가 이미지를 심는 것이 주목적이다. 더하여 방사능 유출로 폐허가 된 후쿠시마의 부정적 이미지 쇄신도 꾀하고 있다. 후쿠시마는 성화 봉송 출발지이자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가 열리는 장소다. 정부차원에서 후쿠시마산 먹거리 식자료를 갖추고 안전성을 홍보하지만 전 세계는 미심쩍어 하고 있다. 올림픽 경기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는 국가적이며 전 인류적 행사이다. 처참한 실패로 끝내고 싶지 않으려면 일본 올림픽위원회와 정부는 불순하고 음흉한 계획들을 거둬들이고 순수한 올림픽 정신에 입각한 대회 운영을 전 세계인들에게 약속해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탄소포인트제 가입으로 지구를 지키자



오 상 हु
서귀포시 동충동행정복지센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던 기상이변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초대형 태풍, 이상 고온현상, 겨울철 폭설 등으로 엄청난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상기후는 온실가스 증가 등으로 발생한 지구온난화가 그 원인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상기후 현상을 막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에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첫걸음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서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하는 것이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 및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탄소포인트제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계량기가 부착된 가정의 1세대 1명으로, 포인트 산정은 참여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5~10%)에 따라 연 2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 종류로는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등이 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www.cpoint.or.kr)를 통하여 가입하거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참여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나의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동네 환경을 살리고,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 2030 추진 및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지구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에 작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서 뜨거워지는 지구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어 보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정치문제 해결되면 관계복원 노력 나설 것”

국제관광박람회 불참한 일본
○...지난 15-18일 일산 컨텍스에서 개최된 제4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당초 참여하기로 했던 일본 측 기업과 지자체 20여 곳이 일괄 불참. 주최 측에 따르면 일본은 한일 경제전쟁 문제가 이슈화된 이달 초 갑작스레 불참을 결정했다는 후문. 이와 관련 주최 측은 “일본과는 지난 세 차례 박람회를 통해 끈끈한 교류가 이어져 왔으나 최근 어색한 분위기가 됐다”며 “정치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면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언급.
부미현기자

행위허가 표준동의서 제작

○...제주시가 행위허가 동의서 양식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로 결정해 눈길. 행위허가란 주택임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 및 건축임상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용도변경, 증축·파손 등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위한 사항으로 동의서가 규격화돼 있지 않아 신청인들에게 혼란을 줌에 따라 표준동의서 양식을 만들어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것. 최원철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점언.
고대로기자

관악계 공연장 관리 허술

○...올해 제주국제관악제는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며 무사히 치러졌지만 마지막날 콩쿠르 입상자 음악회에서 허술한 공연장 관리를 노출. 지난 16일 저녁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연주 도중 아이 울음소리가 터지거나 무대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려는 유아를 붙잡는 장면이 목격. 관악제는 무료 행사임에도 연륜이 쌓이며 객석 분위기가 성숙되는 모습을 보였던 터라 아이 동반 관객을 포함 맞춤형 관람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문.
전선희기자

사설

청정제주 해치는 양돈장 더 이상 안된다

도내 양돈농가를 둘러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무단배출과 악취 민원이 줄기는 커녕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전 축산분뇨 송골 방류사태가 제주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도 불법배출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축산분뇨 불법배출이 증가 추세여서 걱정입니다. 제주시의 경우 축산분뇨 송골 방류사태가 발생했던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52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이 중 6건은 허가 취소 처분을 했거나 내릴 예정이며, 사용중지 명령 6건, 폐쇄 명령 2건, 고발 33건입니다. 같은 기간 서귀포시는 총 45건의 행정처분 가운데 19건이 고발됐습니다. 악취 민원도 해마다 급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는 2015년 246건, 2016년 455건, 2017년 491건, 지난해 982건, 올해 465건에 이릅니다. 서귀포시

역시 2015년 162건, 2016년 249건, 2017년 295건, 지난해 518건, 올해 487건으로 악취 민원이 심각합니다. 문제는 행정에서 축산분뇨 불법배출과 악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불법행위가 여전히 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지난해 3월부터 악취가 심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악취 민원은 되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돈장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주를 찾는 관광객 이전에 주민들이 더 이상 '악취의 고향'에 시달려서는 안됩니다. 축산분뇨 불법배출이나 악취는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만큼 도민이면 누구나 청정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물론 행정의 단속과 제재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양돈농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자치도의 차고지증명제 잇박자 행정

제주자치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면 자기 차고지를 갖추거나 차고지가 없다면 주거지 반경 1km 이내의 유료 주차장을 임대 계약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차고지 증명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유료 공용주차장의 차고지 임대비율을 확대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 지원 예산이 일찌감치 모두 소진되면서 어찌구무 없게도 사업 신청 자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차고지 증명제 시행으로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데도 전혀 준비가 안된 것입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올해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 신청자는 255명에 이르고 현재까지 90명에게 2억7300만원의 성이 필요하다는 주문.
전선희기자

보통 예산이 3억원이어서 앞으로 주차장 10개면 정도밖에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서귀포시는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대폭 늘려 해당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연말까지가 문제입니다. 당장 차량 구입이나 이사 등으로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는 시민들은 유료 공용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을 임대해야 할 상황입니다. 연간 부담액이 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물론 자신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차량의 차고지를 자기 부담으로 확보하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자기 차고지를 확보한 차량 소유자들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또다시 이같은 잇박자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전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애꿎은 피해를 보는 도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김해김공 영삼(향년 9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8월 19일
부인 장순애
아들 김한신, 김현철, 김연재, 김준희, 김지훈, 김연희, 박홍춘

황금향 판매
당도 탁월, 산도 적음
껍질 잘 벗겨짐
생산자 직거래, 택배비 포함
5k(25개~35개) 4만원
10k(50개~70개) 7만원
문의 오문식 010-3696-3933
(도매도 가능합니다.)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그랜드보청기
여름시즌 보청기 특별 할인행사!!!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 15,000원
다양한 행사에 상품들 훈제 전화 주셔서!
최대 60% 파격 할인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무료 방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고급 모델 1+1(원플러스 원 행사)
착용 보청기 A/S 및 무료청력검사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안내
청각장애인 보조금 상한선 131만원 안내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시외버스터미널 동쪽 7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적용
미국식품의약원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자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